주제 : 대선테마주를 이용해 바라본 2017 대선

증권분석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강세장에서 최대의 도박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거의 항상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약세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최대의 도박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연성이 떨어지는 대선테마주는 하나의 큰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지난 2017 대선에 영향을 받은 대선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을 분류해 보는 것을 통해 대선 가장 영향력이 컸던 5명의 후보들 중 국민들이 짐작했던 승리를 알아보았다. 각 후보의 대선테마주는 심상정 후보 에스코넥 외1개, 안철수 후보 안랩 외6개, 홍준표 후보 세우글로벌 외5개, 유승민 후보 동방선기 외 13개, 문재인 후보 뉴보텍 외18개를 조사했다. 대선테마주의 성질을 반영했다고 가정한 기간은 3월 중순부터 5/9 대선 까지다.

심상정 후보의 대선테마주의 경우 그 성질을 잘 가지고 있어 대선 기간에 올랐다가 대선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조사한 주식의 절반은 대선테마주의 성질을 가졌고 나머지 반은 그렇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승민 후보의 결과는 조금 흥미로웠다. 아무리 민주통합당과 비교해서 다른 당들이 단일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도 유승민 후보 또한 확실한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지지층과 주식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대선테마주를 살펴보면서 유승민 후보의 대선테마주들은 다른 후보들의 대선테마주와 비교해서 상승도가 현저히 낮았다. 진양홀딩스, 동방선기 등 대부분의 주식들이 큰 변화폭이 없었다. 심지어 지지도가 더 낮았던 심상정 후보의 주식들도 상승세가 확실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많은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후보의 경우 유승민 후보의 주식들과는 비교되게 대선테마주의 특징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 특히나 안랩의 경우 4월초에 거의 평소에 두 배 이상을 넘는 주가를 보여주었다. 투자자들이 안철수의 승리를 많이 예상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대선테마주들은 안철수 후보만큼 큰 격동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선이후에 주가가 크게 나아지는 곳이 많아지지도 않았다.

대선테마주들을 분석하면 국민이 생각하기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유승민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었으며 안철수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대선테마주들은 그 시기에만 반짝 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테마주들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당선되었지만 그의 대선테마주들도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주가 하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당선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이후에 그곳에 얼마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가 상승의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대선이 끝난 후 대선테마주들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록대로 주가는 결국 떨어지지만 그 당시의 주가 상승폭을 보고 그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